



삼일회계법인

관세에도 꺾이지 않는 매운맛 K-FOOD

글로벌 시장 진출 현주소와 미래

삼일PwC경영연구원 | Industry Focus

October 2025



Contents

들어가며	02
I. K-푸드 현황 점검	03
1. 수출 동향	04
2. 가격 동향	07
3. 기업별 동향	08
[Samil Focus] K-라면	11
II. 이슈 점검: 한-미 관세 협정에 따른 영향 분석	13
1.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	14
2. 한-미 무역협정 내 농식품 분야 주요 이슈	15
III. 결론: 시사점 및 대응방안	22
[찾아보기] 삼일PwC경영연구원 K-Food 보고서 시리즈	24

들어가며

국내 음식료 산업의 기반인 내수 부문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 특성상, 국제 곡물가와 환율 변동에 따라 제조 원가가 크게 좌우되며, 기업이 해당 부문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반면, 원가 상승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는 데에는 정치·사회적 민감성이 작용해 가격 인상은 제한적이다. 동시에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수요 확대에도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수출이 음식료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부상하고 있다. 수출은 압도적인 물량 성장을 가능케 하며,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통해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환율 리스크의 자연 헷지를 통해 원재료가의 안정적 관리도 가능하다.

음식료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중심의 전략 전환이 필수적이다. 최근 한국 음식이 K-푸드*로 불리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2025년 8월 누적 기준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74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 무역정책의 영향으로 K-푸드 수출에 제약이 걸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K-푸드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고, 한-미 무역협정에 따른 국내 음식료 산업의 영향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 K-푸드: 협의의 개념으로는 '조리되어 먹을 수 있는 한국 식품 및 음료'를 지칭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먹거리 전부(식재료 및 조리된 음식)와 담배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분석



I

K-푸드 현황 점검



1.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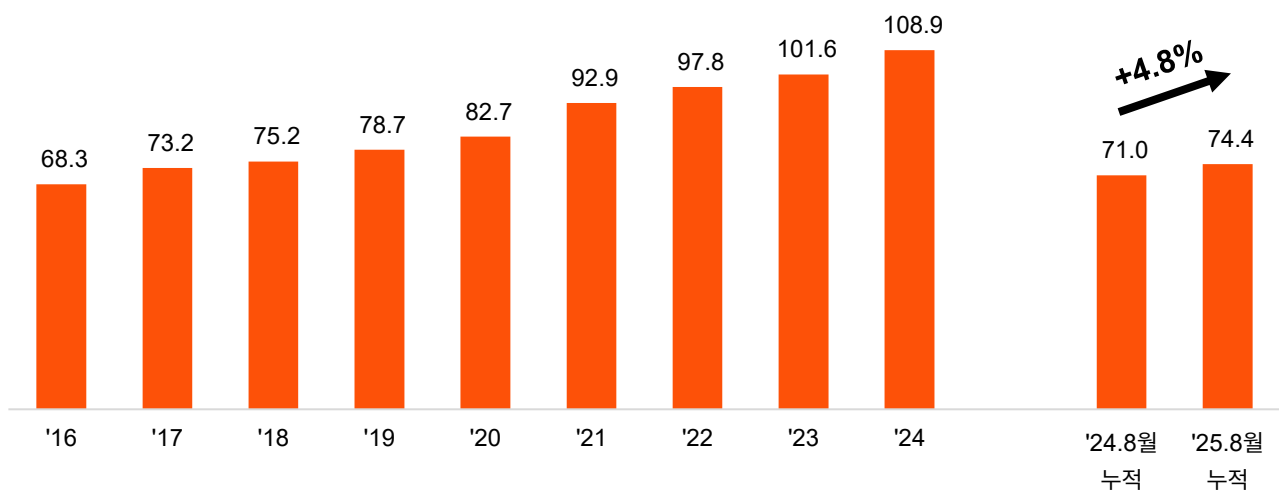
[전체] 관세 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K-푸드 수출 호조 지속되며, '25년 8월 누적 74억 달러 기록(YoY +4.8%)

- 품목별: 가공식품 중심 성장 지속. 라면과 김 뿐 아니라, 베이커리·과자·빙과 등 품목 다양화
- 지역별: 일본으로의 수출이 정체된 가운데, 미국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
- 업체별: 해외 확장에 소극적이던 기업들도 생산시설 투자, 판매법인 설립, 수출품목 육성 등 전략 변화

[지역별] 일본 제외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미국이 K-푸드 수출액 1위 국가로 자리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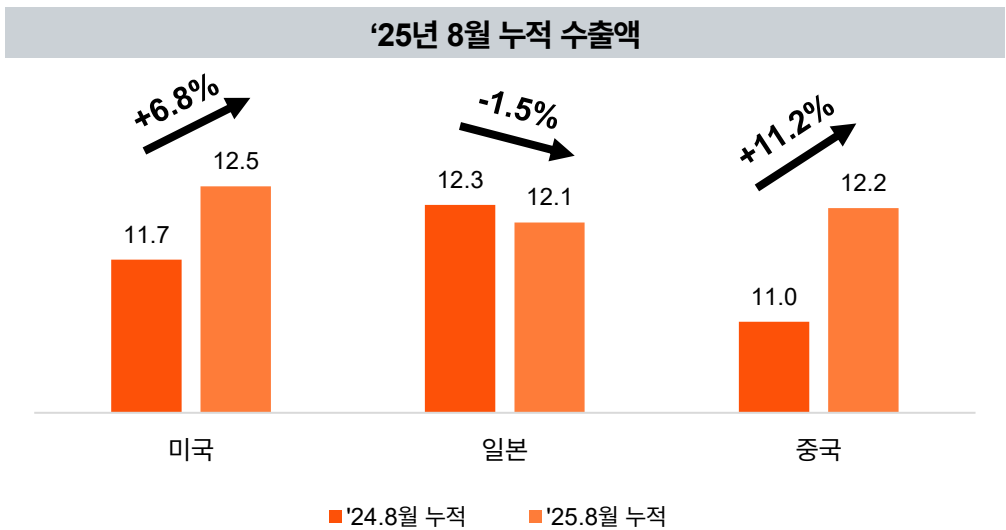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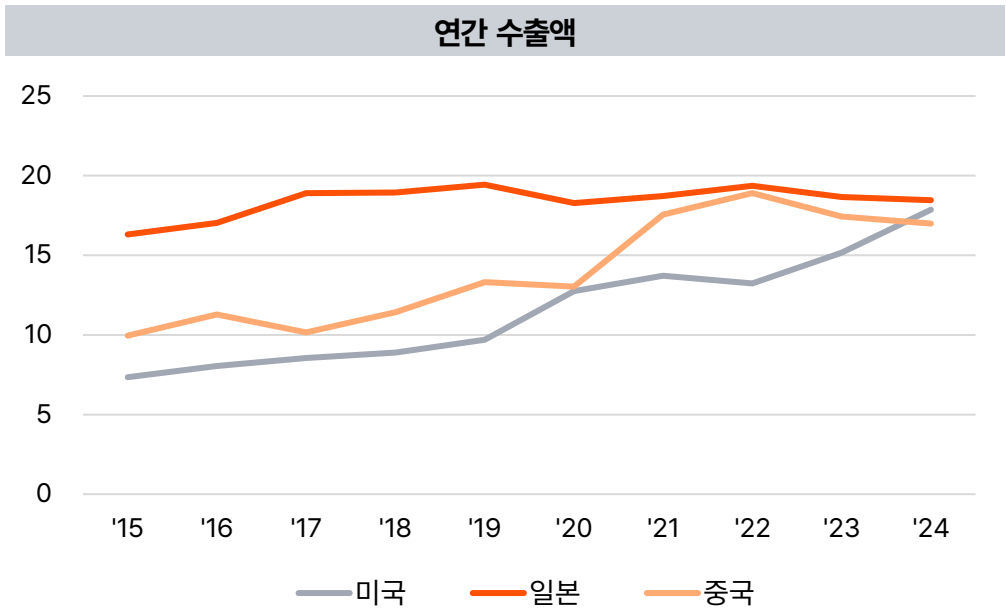
- '25년 8월 누적 기준 미국 12.5억 달러(YoY +6.8%), 중국 12.2억 달러(+11.2%), 일본 12.1억 달러(-1.5%) 수출 → 엔저로 가격경쟁력 약화되며 일본 수출 감소 vs. 관세 이슈에도 미국 수출 양호
- K-푸드 수출 내 주요국 비중은 미국 16.7%, 중국 16.4%, 일본 16.2% 順
 - 일본은 '15년 25.8% → '25.8월 누적 16.2%로 비중 큰 폭 감소(-9.6%p). 동 기간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1%p, +0.7%p 증가
 - 유럽·동남아·중동 등도 호조 지속하며, 수출처 다변화 진행 중

K-푸드 수출액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삼일PwC경영연구원

주요 국가별 K-Food 수출액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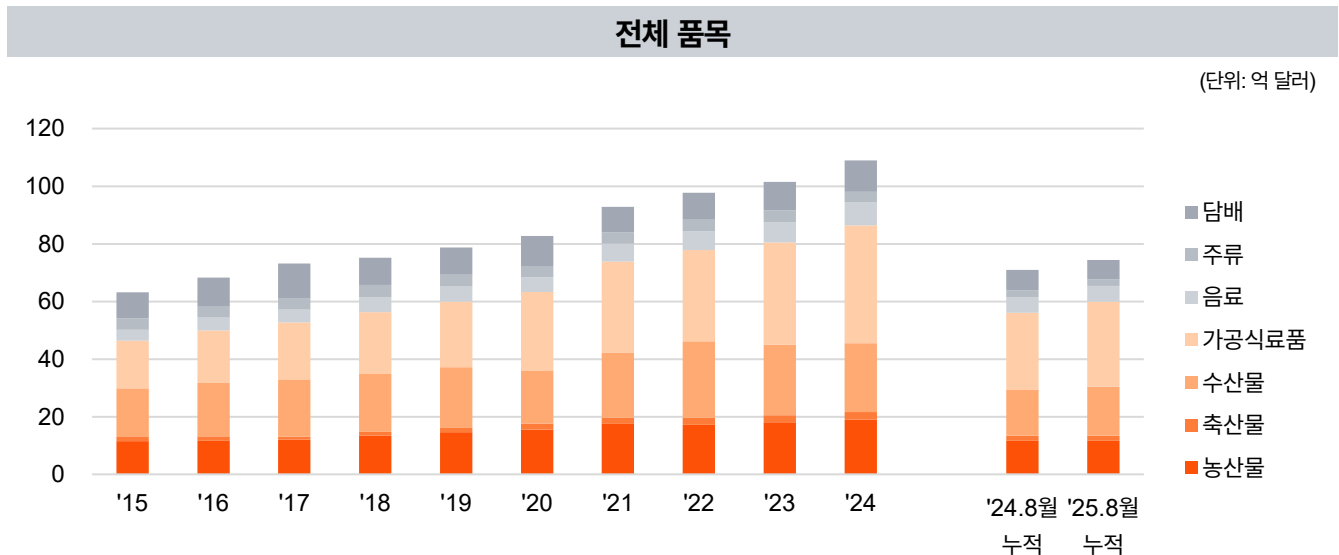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삼일PwC경영연구원

[품목별] 가공식품과 음료가 성장을 주도 vs. 담배와 주류는 성장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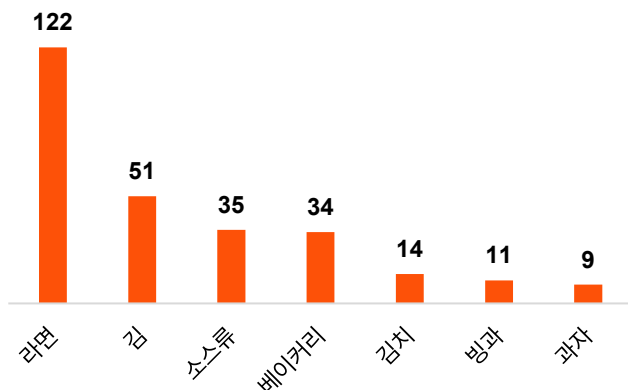
- 5개년 연평균 성장률: 가공식품(+12.5%), 축산물(+10.1%), 음료(+8.7%), 농산물(+5.3%), 담배(+2.8%), 주류(-2.1%) 順
- 가공식품과 음료의 인기로 K-푸드 수출에서 해당 품목 비중 증가: '15년 32% → '25.8월 누적 47%
- 상세 품목별로는 라면의 인기가 지속되며, 월 평균 수출금액이 1.2억 달러 (한화 약 1,600억 원)로 높아진 상황. 이 외에도 김(월 평균 5,100만 달러), 소스류(3,500만 달러), 베이커리(3,400만 달러) 등 호조
 - 라면은 K-콘텐츠 확산 등에 힘입어 권역별 고른 성장세 시현하는 가운데 특히 미국 向 수출이 크게 증가 (전년 동기 비 미국 向 수출 증가율: '24년 연간 +70.3% → '25.8월 누적 +25.5%)

품목별 K-Food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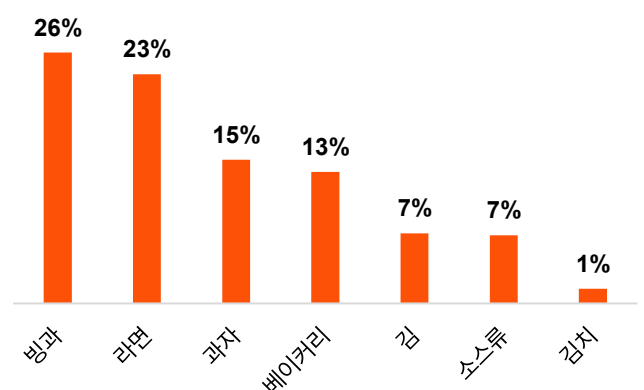
주요 품목 월 평균 수출액 규모

('25년 8월 누적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주요 품목 YTD 수출액 증가율

('25년 8월 누적 기준)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삼일PwC경영연구원

2. 가격 동향

국내 음식료 업체들은 '저가 제품'보다 '특성화/프리미엄 제품'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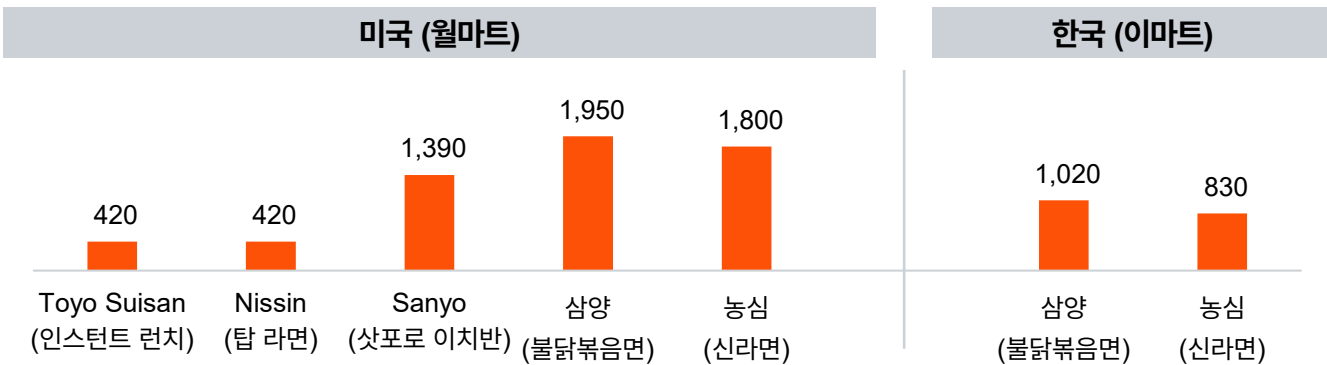
- 통상 해외 판매제품의 평균 단가는 국내 대비 1.5~3배 높음
- '특성화/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판매 전략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저항이 낮은 상황

전년도에 이어 '25년에도 원가 상승·경쟁사의 가격 인상 등을 반영하여 해외 판매 품목의 가격 인상 진행

- 맥도널드, 코카콜라 등 글로벌 음식료 기업들의 사례 비교시,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고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기업은 물가·원가와 무관하게 지역·제품을 번갈아가며 가격 인상을 지속
- 국내 음식료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에도 가격 인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

미국 판매제품 가격 비교 (월마트 온라인, '25.7월 기준)

(단위: 원)



*환율: 1,390원/\$, 봉지 라면 기준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해외 판매제품 가격 인상 추이 ('24년 이후)

기업명	시기	지역	품목	기업명	시기	지역	품목
농심	'24년	베트남	라면	롯데 웰푸드	'24.10월	카자흐스탄	초코과자류 +8%
	'24년	호주	라면		'25.1월	벨기에	전품목 +25%
	'25.7월	미국	라면 +10% 내외		'25.1월	러시아	과자류 +8%
삼양식품	'25.4Q(예상)	미국	라면 +10% 내외		'25.1월	인도	건빙과 +5~10%
오리온	'24.10월	베트남	초코파이 +6%		'25.3월	인도	건빙과 +5~10%
	25.9월	러시아	초코파이, 초코송이 등 9개 제품 +5~7%		'25.4월	카자흐스탄	전품목 +10%

자료: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3. 기업별 동향 삼양식품, 오리온, 롯데웰푸드의 해외 부문 고성장 vs. 농심은 성장을 다소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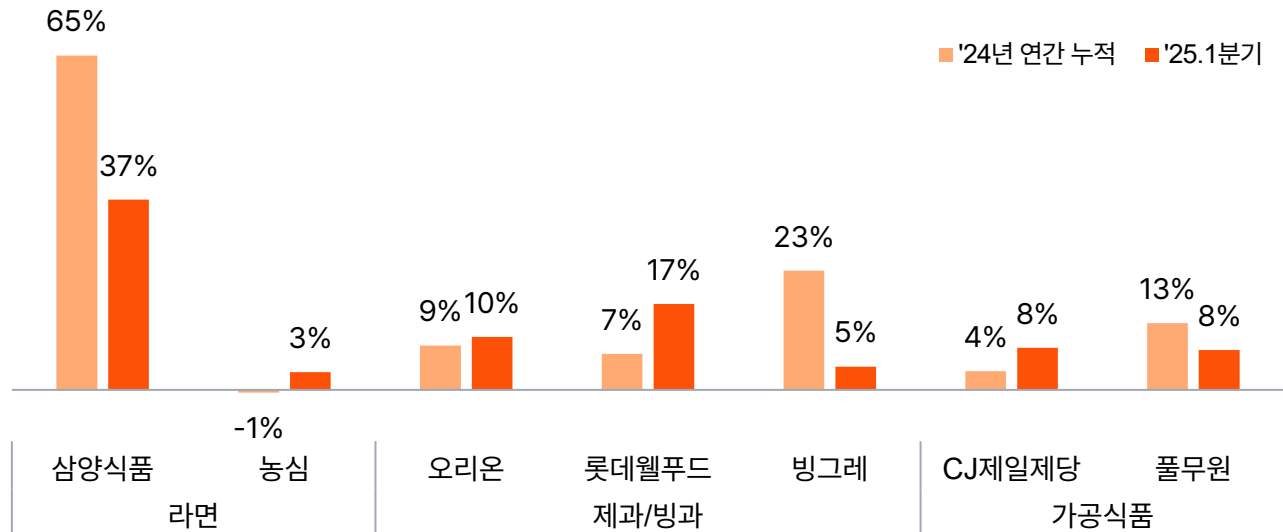
- 삼양식품: 서양인에게는 진입장벽이 높다고 여겨지던 매운맛 시장을 ‘불닭볶음면’으로 선점. '25년 상반기 증설(생산 Capa +40% 증가)을 통해, 하반기 수출 가속화 전망
- 농심: 라면 부문 경쟁심화로 성장 둔화. 매운볶음면인 ‘신라면 톰바’ 출시하는 등 다양한 해결 방안 모색
- 오리온: 러시아·중국·베트남 시장 꾸준히 성장. 북미 진출 시작하며, 중동·동남아·유럽 진출도 준비 중
- 롯데웰푸드: 해외 매출의 35%를 차지하는 인도 시장 매출 확대를 위해 ‘25년 상반기 현지 공장 증설. 인도 빙과 및 건과 생산 Capa 각각 60%, 40% 증가되어, 향후에도 매출 호조 전망
- 빙그레: 미국·중국·베트남을 중심으로 빙과 판매 호조. 미국에서 ‘바나나맛 우유’ 판매 테스트 시작
- CJ제일제당: 기 진출한 미국 시장 순항하는 가운데, 유럽과 오세아니아 채널 확장이 본격화. 유럽 고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헝가리 공장 증축

주요 음식료 기업 해외 매출 비중 (단위: 십억 원, '24년 기준)

	매출	해외매출	해외 비중	주력 품목
삼양식품	1,728	1,336	77%	라면
오리온	3,105	2,015	65%	제과
CJ제일제당	11,353	5,581	49%	가공식품(만두, 피자, 치킨, 김, 즉석밥 등)
농심	3,439	1,375	40%	라면
대상	4,255	1,417	33%	가공식품(김치, 소스 등)
풀무원	3,214	635	20%	가공식품(김치, 냉동식품 등)
롯데웰푸드	4,044	857	21%	제과, 빙과
SPC삼립	3,428	650 ¹⁾	19% ¹⁾	제빵
빙그레	1,463	154	11%	빙과

1) '23년 해외매출 비중(19%)을 기반으로 추정
 자료: 각 사, 금감원 전자공시,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주요 음식료 기업 해외 매출 성장률 (전년 동기비)



자료: 각 사, 금감원 전자공시, 삼일PwC경영연구원



해외 확장에 소극적이던 기업들도 생산시설 투자, 판매법인 설립, 수출품목 육성 등 전략 변화

- CJ제일제당, 농심, 삼양식품 등의 공장 증설 및 지역 확대 지속. 또한, 현지인에 맞춘 전략품목 육성 (오리온-꼬북칩, 롯데웰푸드-빼빼로, 농심-신라면 톰바 등)
- 해외 부문에 소극적이던 오뚜기, SPC그룹, 하이트진로 등도 해외 생산시설 투자하며 신시장 개척 추진

기업별 해외 신규 투자 내역 ('25년 이후~)

구분	기업명	준공(예상) 일시	구분	위치	투자금액	상세
라면	농심	'24년 10월	라인 증설	미국	미확인	라면 제2공장 라인 증설
		'25년 03월	판매법인	유럽	-	유럽 진출 확대
		'27년	신공장	부산	1,918억 원	수출 물류/생산 통합 센터
	삼양식품	'25년 06월	라인 증설	경남 밀양	1,643억 원	생산라인 6개, 수출 대응
		'27년	신공장	중국	2,014억 원	생산라인 6개, 중국 내수
소스/ 라면	오뚜기	'26년 4월	물류센터	울산	226억 원	수출 물량 물류 거점
		'27년	신공장	미국	미확인	미국 생산거점 구축
가공 식품	CJ제일제당	'25년 09월	신공장	일본	1,000억 원	일본 냉동만두 시장 대응
		'26년 하반기	신공장	헝가리	1,000억 원	만두 등 생산
		'27년	신공장	미국	7,000억 원	슈완스 아시안푸드 신공장
	풀무원	'25년	판매법인	유럽	-	유럽 진출 확대
		'26년 하반기	판매법인	미국	미확인	두부 라인 증설
	대상	'25년 말	신공장	폴란드	150억 원	유럽 김치 생산 거점
과자	오리온	'25년 하반기	라인 증설	베트남	1,300억 원	스낵 라인 증설
		'26년 상반기	신공장	베트남		과자 수요 대응
		'27년	신공장	러시아	2,400억 원	과자 수요 대응
		'27년	신공장	충북 진천	4,600억 원	수출 및 내수 대응,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롯데웰푸드	'25년 02월	신공장	인도 빙과	700억 원	
		'25년 07월	라인 증설	인도 건과	330억 원	빼빼로 라인 2개 증설
베이 커리	SPC그룹	'25년 02월	신공장	말레이시아	미확인	제빵 시장 수요 대응
		'27년 하반기	신공장	미국	1억 6천만 달러 (약 2,200억 원)	북미 제빵 시장 대응
주류	하이트진로	'26년	신공장	베트남	1,058억 원	해외 첫 공장. 소주 생산 및 동남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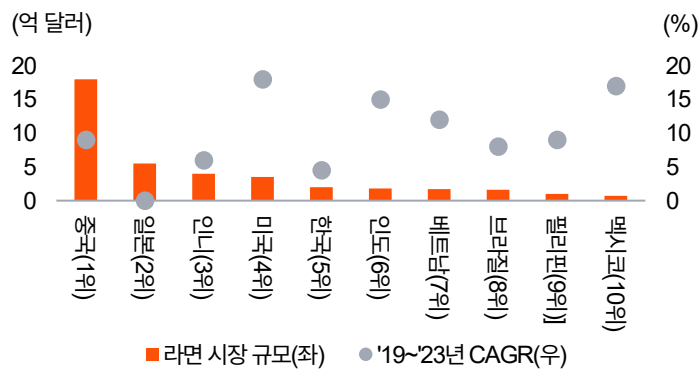
자료: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K-라면

1. 글로벌 라면 시장

- 글로벌 라면 시장 규모는 '24년 기준 609억달러(약 80조 원)으로 추산 (마켓리서치)
 - 중국이 가장 큰 시장으로 라면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아시아 대륙이 과반 이상을 차지
- 코로나-19를 계기로 ① 긴 유통기한, ② 편의성, ③ 가성비비가 부각되면서, 아시아 외 지역에서 큰 폭 성장
 - 미국(4개년 연평균 성장률 +17%), 멕시코(+16%), 유럽(+12%) 등에서 고성장
 - 북남미 및 유럽의 인당 라면 소비량은 아시아 평균 대비 1/10 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성장 여력 충분

주요 라면 시장 규모 및 성장률 ('23년 기준)



자료: 마켓리서치, 하나증권, 삼일PwC경영연구원 재인용

국가별 1인당 라면 소비량 ('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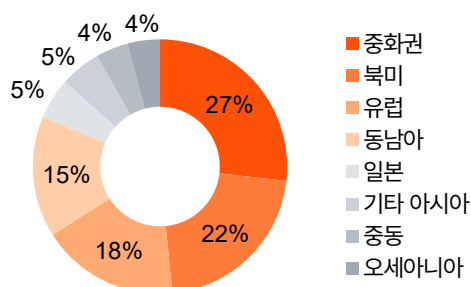
1위	베트남	82개
2위	대한민국	78개
3위	태국	55개
4위	인도네시아	52개
5위	네팔	51개
6위	말레이시아	48개
7위	일본	47개
8위	필리핀	37개
9위	중국	30개
10위	러시아	15개

자료: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2. K-라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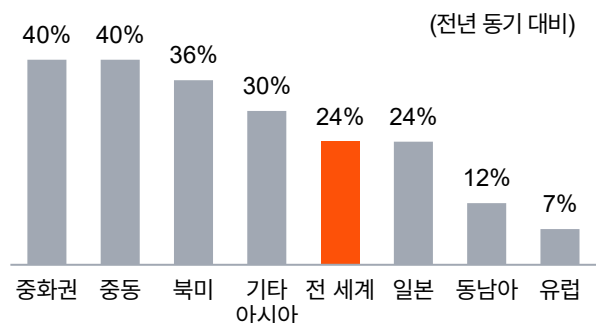
- **[수출 총액]** '25년 상반기 누적 7.3억 달러(약 1조 원)로 전년동기 대비 24% 성장
 - 연간 수출 추이: '20년 6.0억 → '22년 7.7억 → '24년 12.5억 달러 (4개년 평균성장률 20%)
- **[지역별]** 141개국에 수출 중. 중화권(26%), 북미(21%), 유럽(17%), 동남아(15%), 일본(5%) 順
 - 수출 성장률은 중화권(40%), 중동(40%), 북미(36%)로 지역 다변화 진행 중
 - 가장 큰 매출처인 중국, 미국에서 K-라면의 점유율은 각각 4%, 30%로 특히 미국 시장에서 호조

K-라면 수출액의 국가별 비중 ('25.1H 기준)



자료: TRASS, 삼성증권, 삼일PwC경영연구원 재인용

K-라면 주요국향 수출 성장률 ('25.1H 기준)



자료: TRASS, 삼성증권, 삼일PwC경영연구원 재인용

- **[기업별]** 농심과 삼양식품이 K-라면의 양대 기업. 시장 경쟁 심화로 농심의 성장이 다소 주춤한 반면, 불닭볶음면 인기를 기반으로 삼양식품이 고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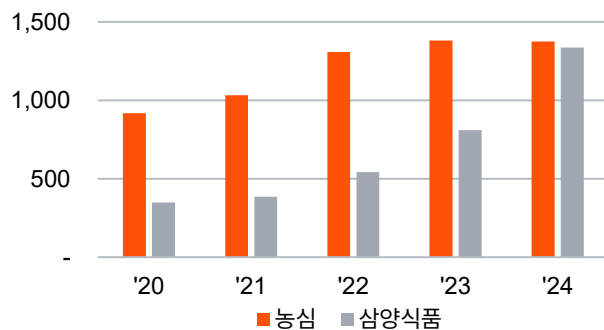
- **농심: 해외 매출 내 가장 큰 비중(45%)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의 정체로, 해외 판매 정체**

- 해외 판매: '22년 1.3조(총 매출 중 해외 비중 42%) → '23년 1.4조(41%) → '24년 1.4조 원(40%)
- 지역별: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 3위(점유율 22%)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심화 및 트렌드 변화로 기존 제품(신라면, 짜파구리 등) 수요 정체 → 매운볶음면인 '신라면 톰바' 출시를 통해 성장 전환 기대
- 생산: 국내 7개, 해외 6개 공장 운영 중이며, 특히 미국은 2개의 공장 운영 중
- 관세 영향: 미국 판매 물량의 상당 부분을 현지 생산 →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15%) 영향 미미

- **삼양식품: 무주공산이던 서양의 매운볶음면 시장을 선점**

- 해외 판매: '22년 6천억(총 매출 중 해외 비중 67%) → '23년 8천억(68%) → '24년 1.6조 원(77%)
- 지역별: 중국/ 미국 시장 호조 속, '24.3Q 유럽 진출 시작
 - * 해외 판매 내 주요국 비중: 중국 31%, 미국 28%, 유럽 2%('24년 기준)
- 생산: 국내 4개 공장 운영. '25년 상반기 생산라인 증설로 Capa 40% 증가(18억 개 → 25억 개)
- 관세 영향: 생산공장이 한국에만 위치하여 미국 수출 시 관세 영향을 받는 점은 위협 요인. 단, 관세(15%)를 가격에 전가 시 판매가격은 1.4\$에서 1.6\$로 변화 → 가격 저항 크지 않을 전망

주요 라면 기업 해외 매출 (단위: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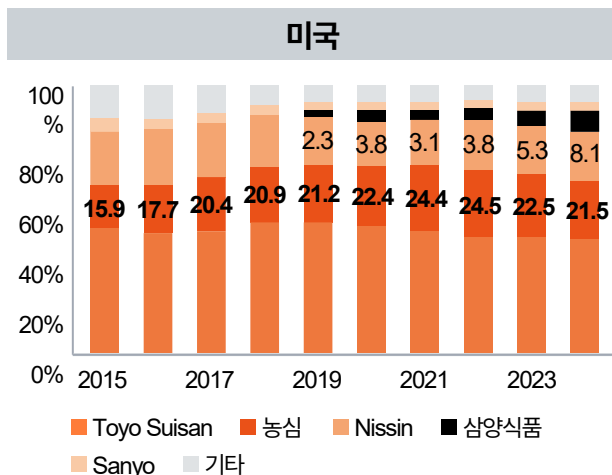
자료: 각 사, 금감원 전자공시, 삼일PwC경영연구원

주요 라면 기업 생산 기지 및 관세 영향 ('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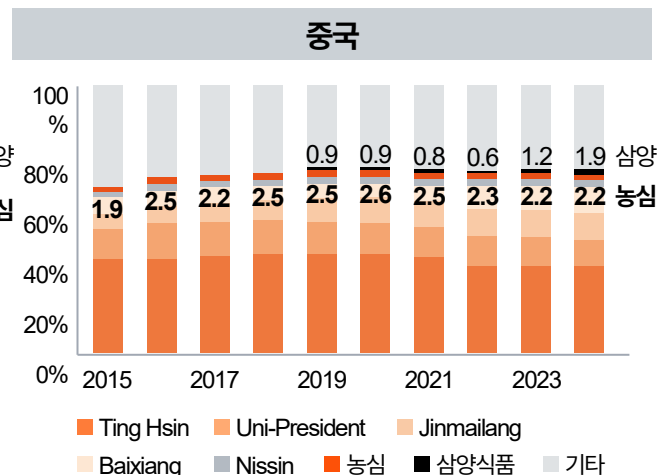
	농심	삼양식품
해외 판매 비중	40%	77%
해외 판매 내 미국 비중	45%	28%
해외 판매 중 현지 생산	70%	0%
미국 관세 영향	미미	다소 영향
판매단가*('25.7월)	1.3\$	1.4\$
상호 관세	-(현지 생산)	15%
관세 전가시 가격	1.3\$	1.6\$

* 각 사 대표 제품(봉지면) 월마트 온라인 판매가격 기준
자료: 각 사, 금감원 전자공시, 삼일PwC경영연구원

미국·중국 라면 시장 점유율 추이 ('25년 이후~)



자료: Euromonitor, 다올투자증권, 삼일PwC경영연구원 재인용



II

이슈 점검: 한-미 관세 협정에 따른 영향 분석



1.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

트럼프 2기 정부 관세정책: 전세계 10% 보편관세 + 국가별 상이한 상호관세 + 주요 품목별 관세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구조

보편관세	• 전세계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발효 ('25.4.5)																
품목관세	부과 발효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강 · 알루미늄 50% ('25.6.4)• 자동차 25% ('25.4.2)• 자동차 부품 25% ('25.5.3)	부과 예정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의약품, 구리 등 필수광물															
상호관세	•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25.4.2) → 협상 후 최종 발효 (국가별 상이)																
	<div>주요국 상호관세 부과 현황 ('25.8.1 기준, 협상 완료 국가)</div> <div><p>자료: 백악관, 언론보도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p></div>	<div><table><thead><tr><th>국가</th><th>관세율</th></tr></thead><tbody><tr><td>중국</td><td>30%</td></tr><tr><td>한국</td><td>15%</td></tr><tr><td>일본</td><td>15%</td></tr><tr><td>EU</td><td>15%</td></tr><tr><td>베트남</td><td>20%</td></tr><tr><td>인도네시아</td><td>19%</td></tr><tr><td>필리핀</td><td>19%</td></tr></tbody></table></div>	국가	관세율	중국	30%	한국	15%	일본	15%	EU	15%	베트남	20%	인도네시아	19%	필리핀
국가	관세율																
중국	30%																
한국	15%																
일본	15%																
EU	15%																
베트남	20%																
인도네시아	19%																
필리핀	19%																

한국은 '25.7.31 미국과 관세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15%로 상호관세 타결

- 협상 직후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양국간 이견이 있었으나, 이후 추가 논의는 없는 상황

한-미 관세 협정 주요 내역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관세: 15% (미국측이 최초 제시한 상호관세 25% 대비 하향) • 품목관세: 자동차 15% (전세계 대상으로 발효된 자동차 관세 25% 대비 낮은 수준) 향후 발표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품목관세에서 최혜국 대우 예정
관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투자 3,50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억달러: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산업 투자 - 1,500억달러: 조선업 대미 투자(선박 건조, MRO 등) •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향후 3년 간): LNG 등 미국산 화석연료 구매 • 자동차, 농산물 등 시장 개방 (한국 정부 설명)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

2. 한-미 무역협정 내 농식품 분야 주요 이슈

한-미 무역협정에 따라 농식품 분야 수입/수출 이슈 발생

<p>농식품 수입 (미→한, 98억 달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對 미 농식품 무역 적자국이나, 미국 측에서는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 ('25.7.31 관세 협정 후 양국 간 이견 → 현재('25.10월)까지 재논의는 없음) <div> <p>향후 예상되는 요구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고기 연령 제한 철폐 • GMO, LMO 등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규제 완화 • 검수 단계에 있는 과일/채소에 대한 승인 </div>
<p>농식품 수출 (한→미, 13억 달러)</p> <p>출처: 농식품수출정보, '24년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농식품에 대한 관세 부과(기존: 0% → 변경: 15%)로 수요 감소 리스크 • 원산지 기준 관세 부과 원칙에 따라 공급망 재편 이슈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부과 시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에 따라 산정 - 단, 미국산 함량이 20%를 초과할 경우 상호관세 대상 제외 → 미국 현지 투자 증가, 미국산 원료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



참고. 국내 농식품 개방의 역사

국내 농식품 개방은 GATT 8차 협상(우루과이라운드, '1994년)으로 시작. 이후 WTO와 FTA를 통해 확대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한국은 1995년 1월 회원국으로 가입
-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한국은 59개 국가, 미국은 20개 국가와 협정('25.8월). 한-미 FTA는 2012년 발효

	GATT(1948~1994)	WTO(1995~)	FTA(2000~)
주요 목적	다자간 관세인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164개국 가입 중('24.9월)	일부 국가 간 관세 대폭 인하 및 비관세 장벽 제거
주요 대상	주로 공산품. 8차 협상(우루과이라운드, '1994년) 후 농산물 개방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규범 등으로 적용 확대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재권 등 기본으로 하고 환경, 노동 등 논란 분야 회피
기본 원칙	최혜국대우의 원칙 ¹⁾ + 내국민대우의 원칙 ²⁾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 ³⁾ 허용 + 상호이익 균형 존중
무역 규제	긴급수량제한(Safeguard)	Safeguard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좌동 + 원산지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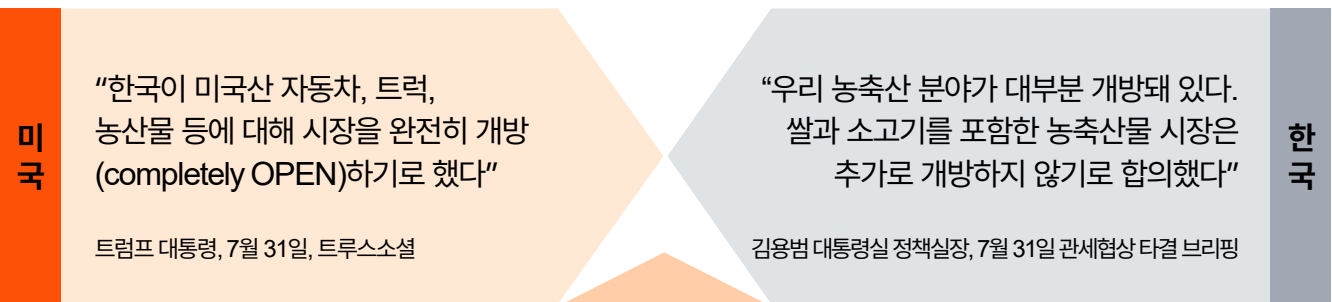
1) 최혜국대우의 원칙 : 어떤 상품에 적용되는 최저관세율이 있을 경우, 이를 다른 나라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

2) 내국민대우의 원칙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관세부과 절차를 만들지 않고, 내국인 절차를 그대로 적용

3)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 허용: WTO는 FTA와 같이 특정 국가 간의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을 인정

① 수입: 이슈 상세

한국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한-미 입장차



국내 수입되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1591종, 이 중 ‘개방 제외’ 품목 35개 → 개방 제외 품목 비율 2.2%

[개방 제외 품목: 총 35개]

- TRQ(관세할당제) 적용 19개 품목: 우유 등 낙농품목 11개, 대두(유) 품목 5개, 꿀, 감자, 오렌지*
* 쿨 출하 시즌(9월~2월)에만 오렌지에 대한 관세 50% 부과. 이 외 기간은 무관세
- 미양허 품목 16개: 모두 쌀 관련 품목



Question 1. ‘개방 제외 품목’이 아닌데, 사과 · 배는 왜 이슈가 되는가?

미국산 사과 · 배는 현재 수입이 안 되고 있지만, 이는 ‘통상이 아닌 검역의 영역’이며 개방률과는 무관

- 사과 · 배 · 복숭아 등이 진딧물 · 복숭아심식나방 등의 병충해 유입에 대한 우려로, 32년째 검수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

미국산 농산물 수입 승인 8단계 진행 상황

1	수출국의 수입 허용 요청	신선 딸기, 자두, 살구, 석류
2	수출국 제출 자료 검토	사과
3	관련 병해충 목록 작성	배
4	병해충별 위험 수준과 방제 난도 평가	아기당근
5	수출국과 위험관리방안 협의 후 식물검역위원회 심의	천도복숭아
6	수입품 검역 요건 초안 작성 후 수출국과 협의	감자*
7	수입 허용 기준 등 입안 예고	
8	수입 시작	

* 플로리다, 뉴저지 등 22개 주에서 수입 가능하나, 캘리포니아 등 11개 주에서 추가 수입 절차 진행 중
자료: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Question 2. 미국산 소고기는 이미 개방 품목인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산 소고기의 관세는 '25년 2.6%이지만, '26년 관세 완전 철폐. 다만, 수입시 월령제한이 존재

- 소고기 역시 사과 · 배 등과 동일하게, 시장 개방 여부가 아닌 검역의 이슈
- 해당 제한은 2003년 광우병 파동 이후, 2008년 한-미 간 합의를 통해 정해진 조치

미국은 월령 제한(30개월령 미만 수입)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고 철폐를 요구

- 일본/대만 등에서 제한을 해지한 것을 근거로 압박
-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向 소고기 수출 판로 난항 → 한국 등 주변국에 압박 가중될 것으로 전망

글로벌 소고기 시장

(’23년, 단위:만 톤)

주요 생산국		
국가	규모	점유율
미국	1,205	20%
브라질	1,056	18%
중국	735	12%
EU	670	11%
인도	442	7%

주요 수출국		
국가	규모	점유율
브라질	300	25%
호주	152	13%
인도	147	12%
미국	140	11%
아르헨티나	76	6%

미국의 소고기 수출국('24년 기준)
: **한국 20%**, 중국/홍콩 19%, 일본 17% 順

주요 수입국		
국가	규모	점유율
중국	352	34%
미국	154	15%
일본	80	8%
한국	51	5%
EU	41	4%

한국 소고기 시장

- 시장규모: 약 80만 톤 ('22년)
- 글로벌 MS: 1.4% ('22년)
- 수입비중: **60% ('23년)**
- **미국산 51%**, 호주산 41%, 뉴질랜드산 4%

자료: USDA-FAS,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수입육협회, 삼일PwC경영연구원

② 수입: 한국에의 영향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산 농산물의 중국 수출 차질 → 타 국가 농식품 시장에 대해 개방 압력 증가 전망

- 미국의 농식품 수출은 총 1,800억 달러로, 캐나다(18%), 중국(16.2%), 멕시코(16.2%), 일본(6.6%), 한국(4.2%) 순 ('23년 기준)
- 주요 수출품목은 대두 및 대두유 추출물(18.7%), 옥수수(7.4%), 냉장 및 냉동 소고기(4.2%), 밀(3.2%), 조제식품(3.2%), 순 ('23년 기준)
→ 수출 2위국인 중국과의 무역마찰로 농식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며, 새로운 수출처 모색 필요

미국에게 한국은 5위의 농식품 수출국이나, 일부 품목에 대해 제약 → 규제 철폐를 위한 압박 지속 전망

- 미국의 수출 비중이 낮은 과실류 보다, 대두·소고기 관련 규제가 이슈화 될 가능성 높음
 - 대두 규제: 유전자변형(GMO*, LMO**) 농식품 관련 규제
 - *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 생물체
 - **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살아있는 유전자변형 생물체
 - 소고기 규제: 30개월령 이상 수입 규제, 가공 소고기 및 일부 부위(내장 등) 수입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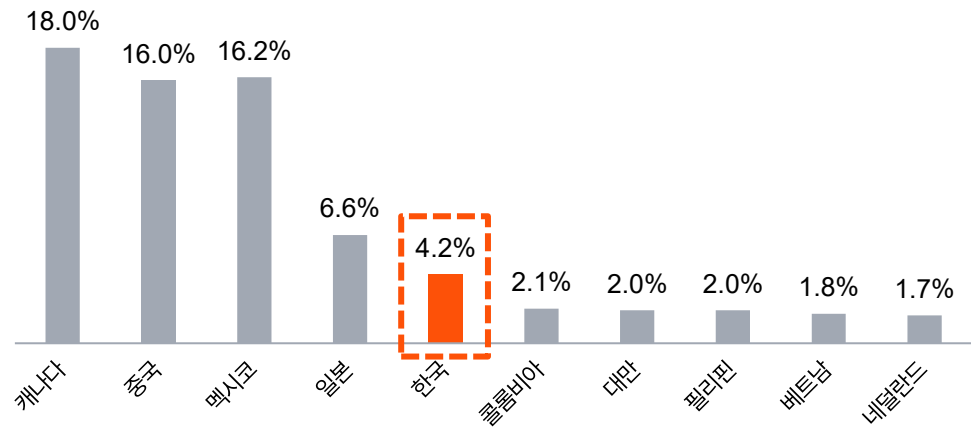
미국의 농식품 시장 현황 (단위: 십억 달러)

	'19	'20	'21	'22	'23
시장 규모	638.7	664	688.9	740.2	770.7
수출	146.1	154.1	180.8	200.8	180.2
수입	149.8	154.7	181.6	211.9	2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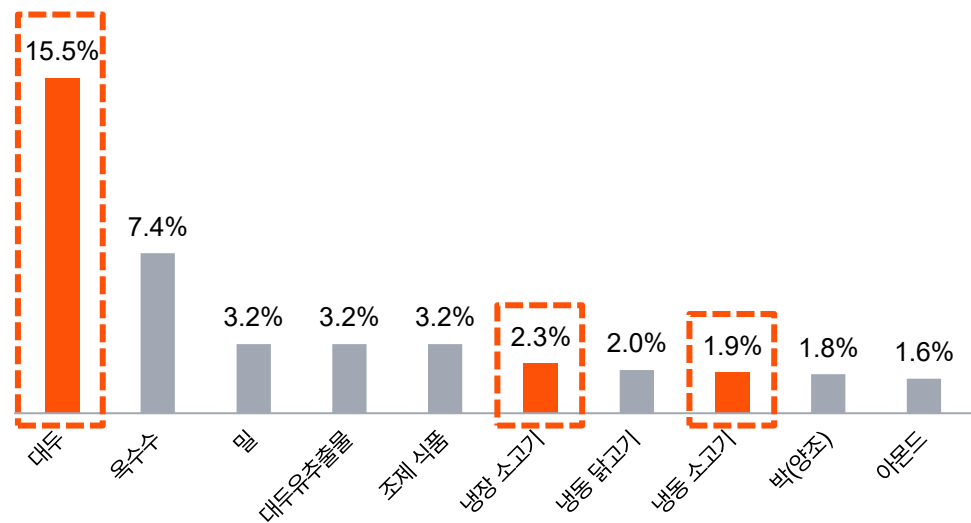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삼일PwC경영연구원

미국의 농식품 수출 상세 ('23년 기준)

주요 수출국 (점유율)



주요 수출품 (점유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삼일PwC경영연구원

③ 수출: 이슈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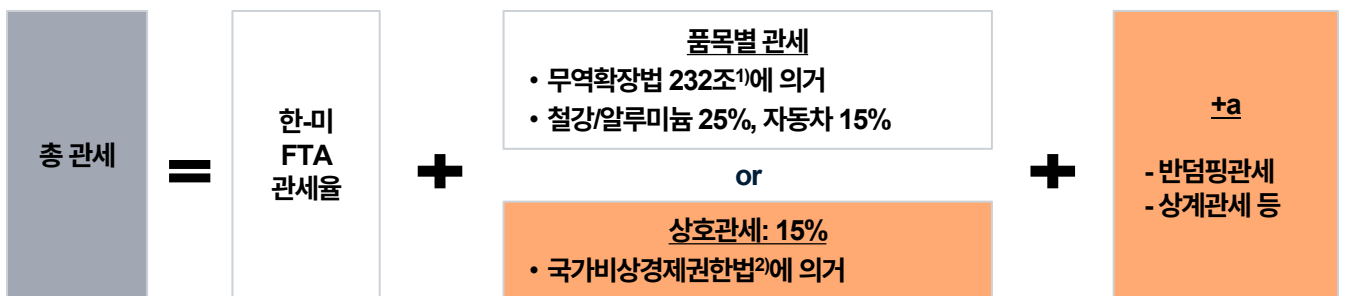
한국 농식품 수출 시 관세 부과(15%) → 소비자가격 전가 시 수요 감소 우려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공급망 재편
가능성 증가

- 원산지에 따라 세율 차이가 발생하면, 원산지는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판단
- 둘 이상의 국가에서 상품·재료를 생산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고려
-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관세국경보호청)가 전체 상황 고려하여 판단

* 실질적 변형: 품명·특성·용도가 변하는 것을 의미

미국의 관세 부과 체계



상호관세 예외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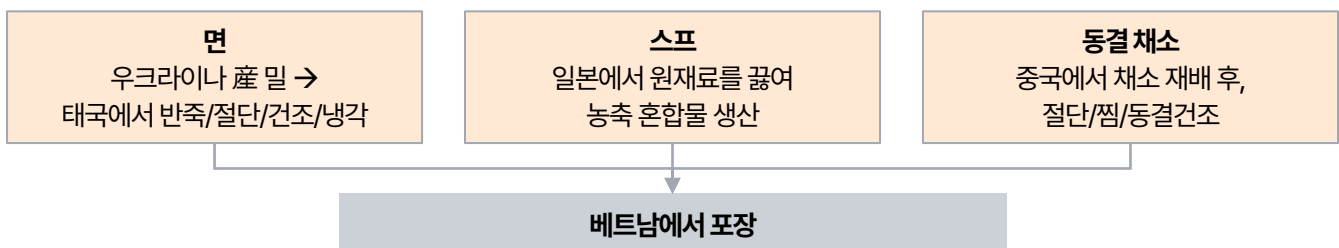
- ✓ 기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중인 품목
- ✓ 미국 내 자체 생산이 곤란한 특정 광물 및 에너지 등
- ✓ **품목 가치 중 최소 20% 이상이 미국산인 경우, 그 미국산 함량**

1) 무역확장법 232조(1962년): 특정 품목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국가비상경제권한법(1977년):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비상 상황 발생 시 외국과의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

자료: 관세청, 삼일PwC경영연구원

원산지 기준 관세 부과 사례: 라면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 판정 결과

- 베트남에서 단순 포장만 이루어져, 실질적 변형이 없음
- 구성품 각각은 본래의 원산지를 유지. 이에 따라 **면은 태국산, 스프는 일본산, 동결 채소는 중국산**으로 구분하여 관세 적용

자료: 관세청, 삼일PwC경영연구원

④ 수출: 한국에의 영향

[긍정] 한국의 상호관세는 미국의 주요 농식품 수입국에 대한 관세 대비 낮은 수준 → 미국 시장 확대 기회로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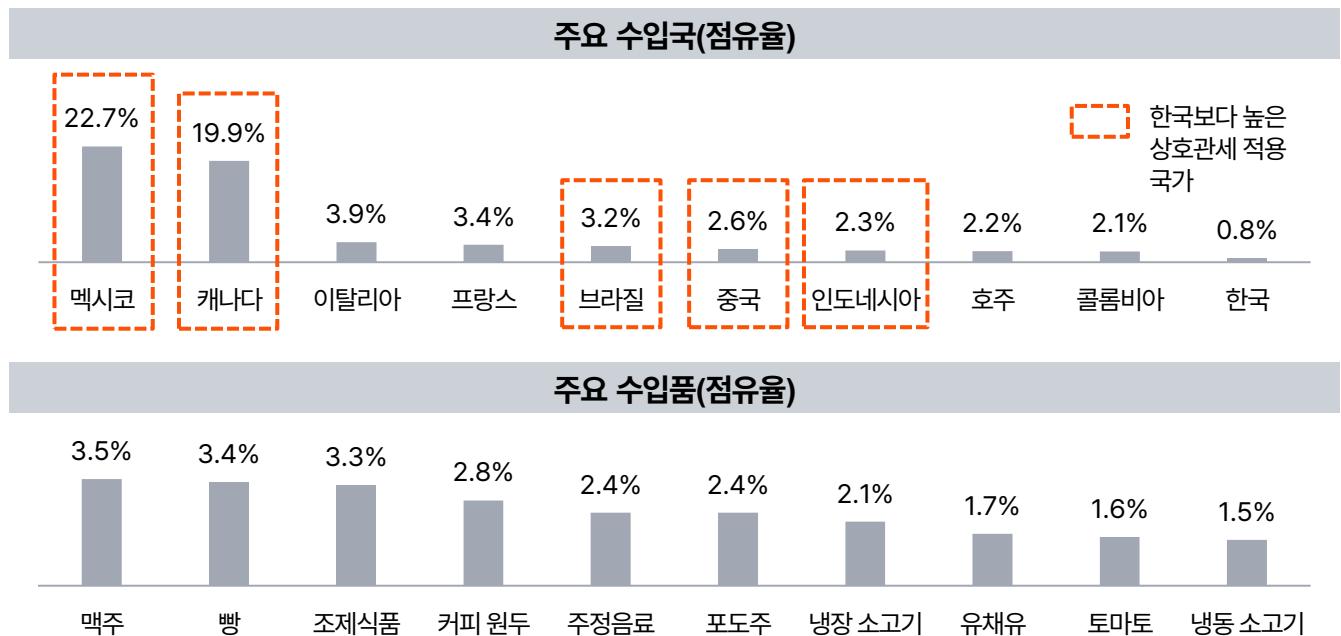
- 상호관세:
(협상 완료) 한국 · EU 15%, 인도네시아 19%, 캐나다 35%, 브라질 50%
(협상 진행 중) 멕시코 25%, 중국 30%
(기타) 호주 · 콜롬비아는 보편관세 10%만 적용하기로 협의 완료
- 미국 내 한국 농식품의 점유율은 0.8%에 불과하여, 시장 확대 가능성 높음

[부정] 상호관세 15% 부과로 미국 소비자가격 인상 불가피

→ 일부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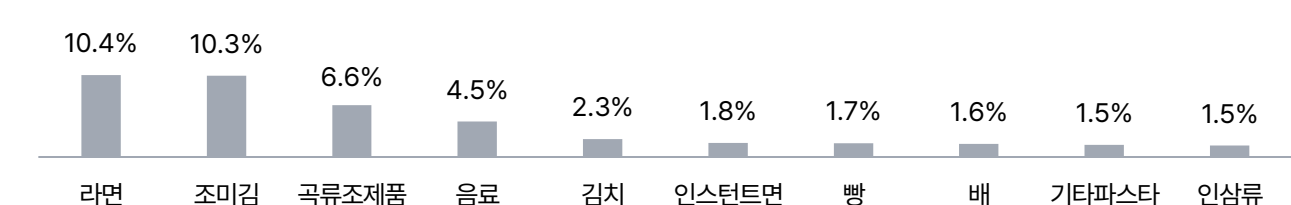
- 미국은 한국에게 K-푸드 1위 수출국(수출 점유율 16%) → 가격 인상으로 수요 위축 가능성 존재
- 다만, 미국의 비싼 외식물가에 따른 내식 수요 증가, K-컬처 열풍 등을 고려할 경우,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미국의 농식품 수입 상세 ('23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삼일PwC경영연구원

한국의 對美 농식품 수출 주요 품목('24년 기준, 미국 총 수출 내 점유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삼일PwC경영연구원

III

결론



시사점 및 대응방안: 수출 중심

	시사점	대응 방안											
관세 대응형 수출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관세 부과로 미국 소비자 수요 감소 리스크단, 미국의 주요 농식품 수입국인 캐나다 · 멕시코 · 브라질 · 중국 등 대비 한국 상호관세가 더 낮아 경쟁 우위 확보또한, 미-중 무역분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을 대체하는 ‘아시안 푸드’ 강국으로 K-푸드 수출 확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한, 가공/기호식품 위주 수출미국 내 지역별 전략 차별화/고도화<ul style="list-style-type: none">대도시: 고급화/프리미엄 제품 공급중소도시: 시장 확대를 위한 대중적 제품 보급중국이 선점한 주요 품목 시장 탈환중장기적으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 관리 및 수출시장 다변화											
	<p>[미국 내 중국산 농식품 수입금액]</p> <p>(단위: 억 달러)</p> <table><tr><th>연도</th><th>수입금액 (억 달러)</th></tr><tr><td>'19</td><td>44.2</td></tr><tr><td>'20</td><td>43.9</td></tr><tr><td>'21</td><td>49.7</td></tr><tr><td>'22</td><td>59.6</td></tr><tr><td>'23</td><td>53.4</td></tr></table> <p>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삼일PwC경영연구원</p>	연도	수입금액 (억 달러)	'19	44.2	'20	43.9	'21	49.7	'22	59.6	'23	53.4
연도	수입금액 (억 달러)												
'19	44.2												
'20	43.9												
'21	49.7												
'22	59.6												
'23	53.4												
공급망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원산지 기준 관세부과 원칙에 따라 공급망 혼란 가중저렴한 인건비, 원료 조달 등의 장점으로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집중된 생산거점들의 메리트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 현지 직접 생산 확대 및 OEM 활용미국산 원재료가 차지하는 가치가 20% 이상인 경우,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조항을 활용한 생산망 설계											
원산지 검증 대응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품이 해당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준비 필요. 구비 서류 간 일관성과 명확한 원산지 흐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											

삼일PwC경영연구원 K-Food 보고서 시리즈



시리즈 1

한국인의 매운 맛: K-Food

2024.07

[자세히 보기](#)



시리즈 2

K-음료, Zero or More

2024.11

[자세히 보기](#)



시리즈 3

마시는 건강기능식품, 생수

2025.01

[자세히 보기](#)



시리즈 4

술 즐기는 시대

2025.03

[자세히 보기](#)

Author Contacts

삼일PwC 경영연구원

이 은 영 상무

eunyoung.lee@pwc.com

오 선 주 수석연구위원

sunjoo.oh@pwc.com

삼일PwC 경영연구원

최 재 영 경영연구원장

jaeyoung.j.choi@pwc.com

Business contact

Consumer Markets Sector

Assurance

정 낙 열 Partner
nakyul.jeong@pwc.com

Tax

허 윤 제 Partner
yun-je.heo@pwc.com

Deals

최 창 윤 Partner
chang-yoon.choi@pwc.com

Food & Beverage Sector

Assurance

이 승 훈 Partner
sung-hun.lee@pwc.com

Assurance

김 한 내 Partner
han-nae.kim@pwc.com

Deals

박 상 태 Partner
sang-tae.park@pwc.com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10W-RP-113